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톡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92	221	498	91
(구세주 내 주 천주여)	(받아주소서)	(예수여 기리리다)	(구세주 빨리오사)

제 1독서 | 2사무 7,1-5.8ㄷ-12.14ㄱ.16

화답송 |

◎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좌)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입은 당신의 진실을 대대로 전하오리다. 제가 아뢰나이다. “주님은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 진실을 하늘에 굳히셨나이다.” ◎

○(우) 나는 내가 뽑은 이와 계약을 맺고,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노라. “영원토록 네 후손을 굳건히 하고, 대대로 이어 갈 네 왕좌를 세우노라.” ◎

○(좌) 그는 나를 부르리라. “당신은 저의 아버지, 저의 하느님, 제 구원의 바위.” 영원토록 그에게 내 자애를 베풀리니, 그와 맺은 내 계약 변함이 없으리라.◎

제 2독서 | 로마서 16,25-27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1,26-38

영성체 후 묵상 |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나자렛 고을의 처녀 마리아는 몹시 놀라며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합니다. 우리도 늘 하느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순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101 (글로리아 높으신 이의 탄생)	106 (찬바람 스치는 마구간)	107 (천사의 찬송)	484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제 1독서 | 이사야서 52,7-10

화답송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좌)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우)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좌)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우)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 2독서 | 히브리서 1,1-6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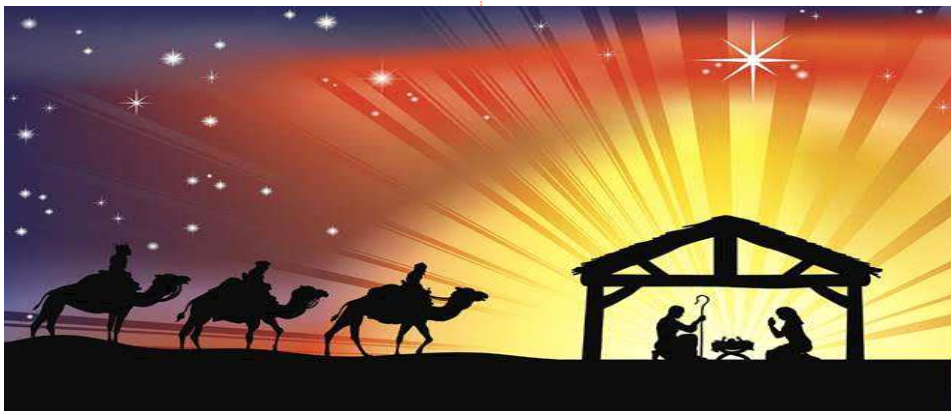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여서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1,1-5.9-14

영성체 후 묵상 |

믿는 이들은 사람이 되신 말씀을 통하여 참된 영광을 보고 은총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은 사람이 되시어 오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어둠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성체 안에서 참된 영광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경축하며 성체 안에 담긴 그분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Archbishop's Office
GPO Box 89
Canberra ACT 2601

2023 CHRISTMAS MESSAGE

LOVE ALWAYS TRIUMPHS

The birth of Jesus, the Light of the World, always triumphs over the darkness.

The hope and light of the First Christmas in the Gospels is proclaimed from the darkness of the night. There is a star that guides. There is the joyful light that the shepherds, the Magi, and all creation encounter in the humble stable.

The surrounding "night" is not simply due to the fact of no sun. It is because there is no Son (of God) in the hearts of some. There are those who plot the killing of the Christ Child. Jesus himself is clothed in cloths and placed in a wooden crib – all suggesting a future death on Calvary. There is no hospitality for the "Prince of Peace" here.

This pattern continues even today.

There is the continuing darkness of the wars in Ukraine, the Holy Land, Africa and other places. Let us not forget that war is always a defeat for humanity – here darkness is chosen over the light of love and peace-making.

There is also the challenge in Australia of re-imagining our relationships with our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 after the defeat of the Voice Referendum.

Also, with the upward trend of the cost of living, this Christmas will be tough for so many to provide the necessities of table and shelter for their loved ones.

Yet, in the midst of these many darkneses, dawns the triumph of Divine Love found in the birth of the Son of God – Jesus, love itself.

Let us in silence and adoration invite this Christmas light, that chases away the long darkness of loneliness and isolation, to triumph in our hearts, our families and our communities!

Let Christmas joy have a practical expression in helping others. Please give generously to the Archbishop's Christmas Appeal. It will assist greatly places of need throughout the world.

Happy Christmas and New Year to all!

Archbishop Christopher Prowse
Catholic Archbishop of Canberra and Goulburn
Christmas 2023

The Catholic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55 Franklin Street, Forrest ACT 2603 | 02 6239 9811 | information@cg.org.au | www.cgatholic.org.au

공지 사항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기쁜 날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1. 새해맞이 성체 조배

·일시: 12월 31일, 11:30pm-12:10am

·장소: St.Vincent's Church (아란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침묵과 기도 안에서 맞이하고자 합니다. 원하시는 신자 분들께서는 성체조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안내 (영어)

·일시: 2024년 1월 1일, 09:30am

·장소: St.Matthew's Church

(주소: 12 Chewings St. Page ACT 2614)

*참고로 지역 교회법상 호주에서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 의무 축일(Holy Day of Obligation)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미사 참례자 수 |

12/17	유아·청소년: 13명	성인: 35명
-------	-------------	---------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전례 독서 봉사자 |

12/24	허준 안토니오, 이명진 이사악
12/25	주정자 루치아, 허준 안토니오
12/31	양홍석 베드로, 안영규 필립보

| 미사 후 뒷정리 |

12/24	마르코반
12/31	마태오반

| 우리들의 정성 | (12/16 ~ 12/22)

봉 헌 금	\$208			
교 무 금	\$540			
권묘순	김요한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장호훈	전인철	조성희	주정자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1.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
해주세요. (예: Gildong Hong)